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2014.3.

<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 정립이 필요

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

-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현황
 -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7%이며,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% 수준
 -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
 -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예비노년층(50~64 세)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% 수준
- 정책과제
 -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의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 정립
 - 노년층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 전환
 - 노년기 평생교육이 여가 복지로 접근 경향이 강하므로 개선이 필요
 -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
 - 노년층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
 - 노년기 평생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의 다양화
 - 평생교육 공급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 확립
 -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양성 고려

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

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86&pageNum=1&groupNum=1

관광진흥개발기금은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수행

관광사업체의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에 따라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

- 배경

- 관광정책사업은 고용창출의 관점보다는 정책적 자원 필요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
- 최근 5년간 관광산업분야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유지

- 결론

- 기금 지원으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조건, 사업선정 방식, 기금 성과평가 지표 등에 고용창출 효과의 고려가 필요
-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소매업, 식음료, 숙박업종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매출 규모가 높은 국제회의업, 관광숙박업 등에 우선 지원을 시행하여 고용창출 효과 제고
- 관광산업의 창업 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신용보증기금 도입
- 신규 지원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분야를 확대시키고 기금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
-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영향평가 실시

- 정책제언

-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체 융자사업과 정책 보조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수행
- 관광사업체의 창의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따라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강구
- 기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원조건 개선과 지원효과의 측정방식 도입

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2014. 4.

<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직업상실과 사회적 및 가족관계 변화의 전환기에 있는 근로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년기 진입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

-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특성 및 삶의 만족 변화

- 1. 경제적 특성 변화

- 2008 년보다 2012 년의 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남
 - 임금근로유지형의 월평균소득과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, 비근로전환형은 월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생활비 지출액은 증가

- 2. 건강 특성 변화

- 2012 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2008 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정신건강수준은 향상

- 3. 삶의 만족 변화

- 배우자 및 자녀관계 만족도는 감소
 - 사회적 친분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2008 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, 여가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

- 시사점

- 직업상실과 사회적 및 가족관계 변화의 전환기에 있는 근로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
 - 은퇴전환기에 겪는 경제적 및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의 부정적인 관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
 -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
 - 노년기 진입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
 -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년층에 대한 노후준비 혹은 노후설계지원의 실질적인 확대

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: 내수 침체로 잃어버린 잠재성장률 0.4%p

현대경제연구원 | 경제주평 | 2014.4.28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금융위기 이후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었다면 잠재성장률 0.4% 상승이 가능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핵심 소비계층 확대

- 내수 침체 장기화
 -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74.3%로 최저치 기록
- 내수위축 규모 추정 및 기회손실 효과 분석
 - 2009~2013년 동안 장기균형보다 하회한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 위축 규모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연평균 8조 300억 원, 8조 680억 원으로 추정
 - 만약 2013년도에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, 24조 9,340억 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, 고용률은 1.1%p 추가적으로 상승해 60.6%의 달성이 가능했을 것
 - 금융위기 이후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었다면 잠재성장률이 0.4% 상승하여 4%에 근접했을 것
- 시사점
 -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%를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
 -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
 -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
 -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·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
 -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

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

현대경제연구원 | 경제주평 | 2014. 4. 7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/ 자영자 / 베이비붐세대 / 다중채무 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

-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

- 1. 채무상환능력

-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에 육박
 - 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,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,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가 증가
 -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감소한 반면,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
 -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악화 속도도 빠름
 -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가파름

- 2. 부채구조 측면

-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
 -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비은행권 부채의존도 확대
 -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원리금분할상환이 늘었으나, 여전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수준
 -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

- 시사점

- 고용주 가구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안정적 사업소득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
 - 자영자 가구를 위해서는 과당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
 - 은퇴한 베이비붐세대 가구가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‘준비된 창업’ 분위기 조성
 - 다중채무가구의 경우, 성실상환을 전제조건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통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

영국의 사례에서 본 규제개혁

LG 경제연구원 | Weekly 포커스 | 2014. 4. 21.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overseas/article.asp?grouping=01010200&seq=656>

영국은 규제개혁 과정에 민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규제개혁 대상도 매우 광범위

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red tape challenge 를 통해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

- 지표로 본 우리의 규제수준은?
 -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평가 7 위, WEF 의 국제경쟁력지수 25 위 그리고 IMD 의 국제경쟁력순위 22 위
 -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규제 영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, 기업의 규제 체감지수를 반영하는 WEF 와 IMD 의 규제환경 평가는 답보상태
 - 선진국 중 안전과 환경규제가 엄격한 독일은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21 위이지만 WEF 와 IMD 의 조사에서는 각각 4 위와 9 위를 차지
- 영국의 규제개혁
 - 영국의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 년 이후 IMD 와 WEF 의 순위도 상승하는 추세
 - 영국은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
 - 영국은 행정규제만이 아니라 회사법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
 - 영국은 2010 년 이후 추진한 규제비용 총량제와 red tape challenge *를 통해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

*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규제까지도 개선하는 제도

2050,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: 1.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4. 4. 18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통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.0~1.5%p 높아질 것으로 예상

남한의 2050 년 1 인당 실질 GDP 는 약 9 만 5 천 ~ 11 만 3 천 달러 수준 전망

- 통일 한국의 경제력 추정 결과

- 1. 시나리오 1) :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

- 통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.0%p 높아질 것으로 예상
 - 남한의 2050 년 실질 GDP 는 약 4 조 8 천억 달러, 1 인당 실질 GDP 는 약 9 만 5 천 달러 수준
 - 통일 한국의 2050 년 1 인당 실질 GDP 는 약 7 만 달러, 실질 GDP 규모는 약 5 조 3 천억 달러로 세계 12 위권의 경제 규모에 이를 전망

- 2. 시나리오 2) :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

- 통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.5%p 높아질 것으로 기대
 - 남한의 2050 년 실질 GDP 는 약 5 조 7 천억 달러, 1 인당 실질 GDP 는 약 11 만 3 천 달러 전망
 - 통일 한국의 2050 년 1 인당 실질 GDP 는 약 9 만 2 천 달러, 실질 GDP 규모는 약 6 조 9 천억 달러로 세계 7 위 수준의 경제 규모에 이를 전망

- 시사점 :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

- 북한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마련
 -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 도모
 - 북한의 개혁·개방 지원으로 북한의 변화 분위기 유도
 -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 - 통일 한국의 정치·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

2050,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: 2.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4. 4. 23

<http://www.hri.co.kr/report/main.asp>

통일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2020 년 57.8%에서 2050 년 68.6%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

-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
 -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서비스업 비중이 2020 년 57.8%에서 2050 년 68.6%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 - 중공업의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,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
-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
 -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·소프트화 진전
 -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
 - 북한지역의 SOC·건설부문은 2030 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 유도
 - 북한지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 증가,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
- 시사점
 - 통일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- 통일 후 북한 산업구조를 1 차 산업 위주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 준비
 - 통일이 북한 경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해 자원조달방안 확보
 -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요구
 - 통일 한국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리드할 수 있도록, 한반도를 넘어서는 생산·물류·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j.re.kr
phone: 02-2149-1022